

# 중국 학당악가와 국민국가 만들기

서 승 임

1. 들어가는 글
2. 청일전쟁 직후 중국 일본 창가의 유입
3. 1900년대 국민국가 만들기를 위한 학당악가의 창작과 출판
4. 나가는 글

[www.kci.go.kr](http://www.kci.go.kr)

## 개 요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서양음악 수용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창가(唱歌, school song) 문화 중 중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이다. 학당악가는 창가의 중국식 표현으로, 학당은 청나라 말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신식 교육 기관, 악가는 학당에서 가르쳤던 음악 교과목을 일컫는다. 학당악가 문화는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국가(nation state)라는 근대적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 노력한 지식인층의 운동과 맞물린다. 무술변법 운동 실패 직후, 일본으로 유학 간 지식인들은 1900년대 초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창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귀국 후 신식 학당이 밀집해 있는 상하이로 중심으로 학당에서 악가 과목의 교편을 맡으면서 교육용 악보집을 출판했다.

본 논문에서는 청일전쟁 패배 직후 지식인들이 구국(救國)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창가를 유입한 배경과 1905년에서 1909년 사이 출판되었던 다섯 권의 악보집을 통해 일본식 창가가 점차 중국식 근대 교육의 틀에 맞춰져 가는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유신파 지식인 량치차오의 “신민설”(新民說)에 의거해 해당 악보집에 수록된 학당악가의 내용을 분석해볼 것이다. “신민설”은 국민 국가 건설의 핵심을 국가사상을 갖춘 국민의 양성이라고 상정한 량치차오가 신민의 요건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그가 제시한 신민의 3요소인 민지, 민덕, 민체는 당시 교육 개혁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학당악가의 주제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서양음악 수용 연구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초국가적 단위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창가 연구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투입은 동아시아 근대 창가 문화를 비롯한 서양음악 문화를 보다 다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중국, 학당악가, 창가, 국민국가, 지식인, 동아시아, 음악과 정치

##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서양음악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음악(musics of Korea)으로 자리하며 사람들의 음악 관습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듯,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에게 서양음악은 더 이상 자국 문화와 이질적인 외래문화가 아닌지 오래되었다.<sup>1)</sup> 특히 중국의 경우, 19세기 중후반 본격적인 수용<sup>2)</sup> 이후 중국에 유입된 서양음악에 대해 ‘신음악’(新音樂)<sup>3)</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서양음악의 자국화 양상에 대해 연구하고 학문화하는 음악학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음악 수용 이후 자국 음악과 외래 음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고 조율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까지도 음악 창작과 음악사 서술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의 서양음악 수용과 현재 중국의 서양음악 문화를 다루는 ‘신음악’ 담론 안에서 그 출발점인 ‘학당악가’(學堂樂歌)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 학당악가는 청나라 말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신식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학당’과 학당에서 가르쳤던 음악 교과목인 ‘악가’가 합쳐진 말이다. 학당악가 문화는, 1900년대 초 무술변법운동 실패 직후 일본으로 유학 간 지식인들이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창가를 배워 귀국 후 신식 학당이 밀집해 있는 상하이로 중심으로 학당에서

1) 채현경, “Songs of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 Why do we need to study primary sources?” 『이화음악논집』 16/1 (2012), 101-128.

2) 장전,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233-308.

3) 홍콩 음악학자 류칭즈(Liu Ching-chih)에 따르면 중국의 신음악이란 “18-19세기에 유럽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음악재료를 사용해 작곡가의 기술, 양식, 형식에 맞게 작곡한 곡”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서양음악 유입 이전의 중국 음악과 그 이후의 중국음악은 확연히 구분되므로 중국의 관점에서는 ‘새로운(新)’ 음악이기 때문에 그는 근대음악(近代音樂, modern music)이나 현대음악(現代音樂, contemporary music)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음악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A Critical History of New Music in Chin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10), 12.

악가 과목의 교편을 맡고 교육용 악보집을 출판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 창가를 유입한 배경과 더불어 1900년대 초 출판되었던 악보집들을 통해 일본식 창가가 점차 중국식 근대 교육의 틀에 맞춰져 가는 양상을 살펴본다. 더불어 학당악가가 성행하던 시기 대표적인 유신파 지식인 량치차오의 “신민설”(新民說)에 의거해 해당 악보집에 수록된 학당악가의 가사를 분석하며, 학당악가가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국가(nation state)라는 근대적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 노력한 지식인층의 운동과 맞물리고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서양음악 문화에 관한 연구는 취약하기 때문에 번역된 몇몇 개론서<sup>4)</sup> 외에는 참조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이화음악연구소의 토대연구<sup>5)</sup> 참여를 통해 중국의 근대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쉽지 않은 연구에 과감히 발을 디딜 수 있었다. 필자는 토대연구를 통해 베이징에 소재한 중국예술연구원, 북경대학교, 중앙음악학원, 중국국가도서관과 상하이에 소재한 상해도서관과 상해음악학원 등 총 여섯 기관에서 1900년 초기에 발행된 1차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장전, “중국 근대 양악사 개론”(『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중 3장, 2008), 전인평, “현대 중국음악의 전개: 유럽음악 수용시대”(『동북아시아 음악사』 중 6장, 2012), 백광준, “중국 근대교육의 발전”(『중국 근대의 풍경』중 5장, 2008)에서 10페이지 가량 언급되는 서양음악 교육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진대량, “중국의 서양음악 수용연구(1920~1949),”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5) 이화음악연구소 토대연구는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토대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0월 31일까지 3년 동안 ‘동아시아 근대음악교육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라는 주제로 실시한 연구 사업이다. 3년에 걸쳐 1900-1945년에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에서 발간된 서양음악 교육 관련 서지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현재 <http://emusicdb.info>에서 한·중·일 근대 음악 교육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 2. 청일전쟁 직후 중국 일본 창가의 유입

청나라 선종(宣宗) 시기인 1869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선칭홍(沈慶鴻, 1869-1947)은 대형 선박업을 하는 명문 귀족 집안에서 출생했다. 여느 명문 집안의 자제와 같이 선칭홍 역시 관리에 등용되고자 10살부터 과거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한 조계지 중 한 곳인 상하이는 신지식과 새로운 사상들이 어느 곳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었던 곳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서양의 신학문(西學)이 유행하고 있었다. 서학에 흥미를 갖게 된 선칭홍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위한서원(約翰書院)에서 2년간 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준비하던 향시 낙방에 아버지까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선칭홍은 과거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897년, 당시 유신파 지식인들은 상하이에 신식 학당인 남양공학(南洋公學)을 건립해 신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곳에 보다 흥미를 느낀 선칭홍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위한서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남양공학에 입학해 수학, 영어, 물리 등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청나라의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자 일어난 무술변법운동이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보수 세력들이 다시 관직을 점령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선칭홍은 청의 개혁을 열망한 지식인들의 동향에 맞춰 1902년 33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선칭홍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의 체제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 문화에 흠뻑 매료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이 어린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서부터 정치, 사람들의 생활에 까지 다방면에 걸쳐 작용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함께 일본에 유학해 있는 다른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도쿄에서 ‘음악강습회’(音樂講習會)를 조직했고, 선신궁(沈心工)이란 필명으로 <체조-병조>(體操-兵操)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다음은 악보와 가사 전문이다.

[악보 1] <체조-병조>

男兒第一 志氣高 年紀不幼 小 哥哥弟弟 手相招  
 來做兵隊 操 兵官拿槍 指揮刀 小兵放槍 炮  
 龍旗一面 飄飄 銅鼓 □□□□ 敲 一操再操 日日操  
 操得身體 好 將來打仗 立功勞 男兒志氣 高

\* 가사 중 □의 글자는 哆 이다.

사내아이는 뜻과 기개가 높아야 해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  
 형 아우 모두 모여 군대식 체조를 하세  
 군관은 지휘도를 들고 소병은 총과 대포를 잡고  
 룡기(龍旗)를 휘날리며 동고(銅鼓)를 둥둥둥둥 치네  
 매일 매일 체조하면 신체가 건강해지니  
 앞으로 공로를 세울 사내아이는 뜻과 기개가 높아야 해

이 곡은 중국 최초의 학당악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곡을 만든 선신궁(본명: 선칭홍)은 학당악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중국의 학당악가 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유희 창가인 <手指遊戲>에 본인이 직접 작사한 가사를 덧붙여 노래를 만들고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잡지에 숫자보 형태로 기재했다. 군관, 지휘도, 소병,

총, 대포 등 군사 용어를 사용해 남자 아이들에게 체조를 장려하는 내용의 가사는 선신궁이 중국 구어체 언어인 백화문(白話文)으로 작사했다는 점과 군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노래로 평가된다.<sup>6)</sup>

상하이, 청일전쟁, 남양공학, 무술변법운동, 일본유학, 메이지 일본의 음악 문화 등 선신궁의 간략한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중 언급된 일련의 키워드들은 앞으로 소개할 학당악가의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당악가는 중국 일본유학생들이 습득한 근대와 국가 개념과 함께 메이지 일본을 경유하여 수용된 음악이자 음악 운동이다. 따라서 19세기 말 반식민의 상황에 처하게 된 청조의 역사적 추이와 그에 따른 메이지 일본과의 접촉은 1900년대 학당악가가 성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 1) 학당 설립과 악가 과목의 시작

청조(淸朝, 1636-1912)는 “동아시아를 상대로 ‘문명’의 이름으로 전개한 영국의 첫 전쟁”<sup>7)</sup>인 아편전쟁(1842)을 시작으로 기존의 세계관과 정체성에 큰 타격을 얻었다. 급기야 1860년 베이징조약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게 각각 주룽반도 할양, 가톨릭 재산 반환, 연해지역 일부를 할양함에 따라 청은 실질적으로 과분(瓜分)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로부터 30여년 후,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와 그에 따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로 청은 단순히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양무운동)을 넘어, 기존의 문화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마련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8)</sup>

6) 嚴逸澄, “沈心工和學堂樂歌,” (Opera, 2008/9), 61.

7) 차태근,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20.

8) 백영서,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37.

우리나라가 4천여 년의 큰 꿈에서 깨어나게 된 것은 갑오년 전쟁의 패배로 타이완(臺灣)을 할양하고 2백조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서다. 황제가 노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변법자강책을 실행한 것은 분명 자오저우(膠州), 뤼순(旅順), 다롄만(大連灣)과 웨이하이웨이(威海威)를 잃고 난 뒤 시작되었다. (량치차오,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 1898)<sup>9)</sup>

갑오년 전쟁, 즉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여태껏 중국의 ‘번속국’(蕃屬國)에 불과했던 일본이 청을 능가해 아시아의 패자로 거듭난 것을 확인한 사건이기에 지식인층이 느낀 무기력감은 다른 여느 서구 열강들의 침략보다 훨씬 컸고, 이는 청말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학당(學堂)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과 악가 과목의 시작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학당은 서원(書院)이라는 기존 교육기관과, 팔고문과 과거제도로 대표되는 전통적 교육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비롯해 19세기 중반부터 선교사와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근대식 교육기관이다. 특히 청일전쟁 직후 Kang Youwei(康有爲, 1858-1927)가 광서제에게 교육 개혁에 관한 상서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술변법운동을 거치면서 점차 관(官)으로 확대되어 갔다. 무술변법운동 실패 후 잠시 주춤했던 교육 제도 개혁 움직임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조차 신정(新政, 1901-1911)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학당 설립이 관 주도로 진행되면서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로써 1900년대 중국에서 서구 근대식 교육 체제에 따른 신식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되었으며, 교과목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음악 과목이 새롭게 조명 받기 시작했다.

9) 梁啓超, 『戊戌政變記』(昆明: 中華書局, 1941), 1.

신식 학당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음악’이 새로운 교과목으로 대두되었다. 무술변법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몇몇 소수의 양무파 관료들이나 혹은 초기 유신파 지식인들은 창가 과목을 신설해 가르치기도 했다.<sup>10)</sup> 하지만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실험적 성격으로 끝났다. 하지만 1898년 8월 Kangyuewei가 Kwangseje에게 올린 상서에 의해 음악 교육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관과 접촉할 수 있었다. Kangyuewei는 <청개학교절>(請開學校折)(1898)에서 독일 학제에 의거해 “국민 학교를 창설해 향마다 소학을 건립하고, 7세 이상의 국민들은 필히 다니게 하여 역사, 산술, 지리, 물리, 가악(歌樂)을 가르쳐 8년 이내에 졸업하게 하소서”<sup>11)</sup> 라 하였고, Kwangseje가 이를 수용하여 무술변법운동 기간 동안 신식 학당이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음악’(音樂), ‘악가’(樂歌), ‘창가’(唱歌), ‘금학’(琴學) 등 새로운 음악 과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12)</sup>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음악 활동을 하는 과목이 학제에 정식으로 추가된 것은 1909년<sup>13)</sup>부터이며, 그 이전의 학제들에서는 음악 과목이 시(詩), 특히 고시(古詩)를 낭송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1904년 1월 주정학당장정 반포 시, 외국의 교육체제를 고찰한 교육법규 제정자들은 음악 과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0) 장즈둥은 그가 창립한 삼강사범학당(三江師範學堂)에 일본 학교 음악 수업을 차용해 음악과목을 만들었다. 상해 징위엔쑤엔(經元善)이 창립한 경정여숙(經正女塾)에서도 피아노반(琴科)이 창설되었으며, 차이위엔페이(蔡元培)가 운영하던 “애국여학(愛國女學)”에서는 창가과목을 만들었다. 王毓和, 『中國近現代音樂史』(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12), 44.

11) 陳應時·陳聆群, 『中國音樂簡史』(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6), 230.

12) 위의 책 230.

13) 1909년 공포된 ‘여자소학당장정(女子小學堂章程)’, ‘여자사범학당장정(女子師範學堂章程)’에서 음악 과목이 처음으로 언급되나, 여학당에 국한되며, 남녀와 학급을 막론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 교육은 민국시기 제정된 임인학제(1912)에서 언급된다.

진한(秦漢)이전, 상서(庠序, 고대의 학교) 중에 음악을 공부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오늘날 외국의 중소학당, 사범학당에는 모두 창가음악(唱歌音樂) 과목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음악전문학당도 함께 설립하니, 이는 깊이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중국의 옛 음악인 아악은 너무 오래되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현재에 학당 음악 설치하는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으며, 훗날 보다 강구하여 보충해야겠다.<sup>14)</sup>

음악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제 설립 초기에는 신식 학당에서 가르칠 만한 음악적 자원과 내용, 혹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학제 내 음악 과목 관련 규정의 범위와 별개로 이미 음악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다.<sup>15)</sup> 교학 내용 역시 고대 시가 음송을 강조한 학제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불리고 있는 서양음악 곡조를 들여와 가창을 가르쳤다. 학당악가는 이렇게 학제와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신식 학당을 통해 음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민간에서의 음악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1901년 건립된 상해남양공학부속소학(上海南洋公學附屬小學)의 악가(樂歌)과목

14) 伍雍誼, “學務綱要,” 『中國近見大學校音樂教育(1840-1949)』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 80에서 재인용.

15)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양 음악 교육이 처음으로 진행된 곳은 19세기 초중반 중국으로 건너 온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스쿨에서였다. 프랑스 천주교 예수회에서 1850년에 상하이에 설립한 서휘공학(徐匯公學)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조톨리(Angelo Zottoli, 晁德蒞, 1826-1902) 신부는 “음악 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매우 빠르게 배우고 있다”는 진술을 남기기도 했고, 독일 선교사 에른스트 파버는 『德國學校論略』(1873)란 책을 저술해 시창, 악리 등 독일의 음악 교육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 선교사인 티모시 리차드(Timothy Richard, 李提摩太, 1845-1919)와 그의 부인은 1883년 『기詩譜』라는 시창 교재를 편찬하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을 들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선신궁은 일본 유학 후 1903년 귀국하여 상해남양공학 부속소학의 악가 과목을 맡아 소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신궁은 직접 노래를 창작했고, 이 노래들을 한데 모아 1904년 5월에 중국 최초의 음악 교재인 『학교창가집』(學校唱歌集)을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학 내용이 결코 학제에서 규정한 고대 시가 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록곡들이 대부분 유럽, 미국, 일본의 서양음악 곡조에서 가져온 것이거나 그것들을 바탕으로 창작한 새로운 노래라는 점이다. 같은 해 4월, 일본에 유학중이던 쩡즈민(曾志恣, 1879-1929)이 출판한 『교육창가집』(教育唱歌集)에서 역시 외국 곡조에 가사를 붙인 노래를 실고 있다.

이처럼 학당의 음악과목용으로 창작된 학당악가는 학제에 음악 과목이 등재되기 전부터 여러 학당들에서 몇몇 선구자들의 개인적 활동에 의해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중국 음악 교육 선구자들의 실천 덕에, 음악 교육은 정식으로 학제에 반영되기 전부터 이미 명확한 교육 목적과 고정된 교육 시간, 상응하는 교학 방법과 과정, 이에 맞는 독립된 교재를 갖출 수 있었으며, 곧바로 신식 학당 안에서 독립된 학과를 갖출 수 있었다.<sup>16)</sup>

즉 학당악가가 학당이라는 정식 교육 기관에서 불린 노래이지만, 학당의 개편과 그에 따른 학제 설립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그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1900년대 학당악가는 학제와 무관하게 민간 차원에서 개개인에 의해 유입되고 창작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 2) 일본 창가의 유입

1904년 5월 일본 유학중이던 쩡즈민은 도쿄에서 ‘아아음악회’(亞雅音樂會, 아시아 클래식 음악 협회)라는 음악 단체를 만들었다. 다음은 이

16) 伍雍誼, 『中國近見大學校音樂教育(1840-1949)』 85.

단체의 모임 때 불렀던 노래 <대국민>(大國民)의 가사 시작 부분이다.

수 천 년 동안 한 줄기로 이어와 문명이 탄탄하네.  
 가로 세로 수 만 리에 비옥한 땅, 자연의 이로움을 누리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며, 우리 국민은 아시아  
 의 대국민이니,  
 아! 대국민이여! 아! 나는 대국민! (...)

아아음악회는 중국 최초의 신식 음악 단체로, 약 5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해 “학교와 사회의 음악을 발달시키고, 국민의 정신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취지하에 함께 음악 활동을 한 단체다. 아시아라는 근대적 세계관 속에서 중국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고하며, ‘국민’이라는 명칭을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국가 단위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이 노래는 당시 일본에 유학중이던 중국 유학생 및 지식인들의 일체감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에 체류한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음악 운동인 썸이다.

학제와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서양식 곡조의 음악을 들여와 교육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일본에 유학중이던 중국 유학생들의 음악 문화와 운동의 영향이 지대하다. 어떤 음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했던 학제와 별개로 청말 일본에 유학을 간 지식인들은 음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경험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던 음악은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그들의 부강함과 직결되는 특징 중 하나로 각인되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서양음악을 “일본의 근대화 특히 일본인의 심신의 근대화와 국민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sup>17)</sup>으로서 국가적

17) 박진수, “근대 일본의 번역창가와 문화내셔널리즘-‘올드 랭 사인’의 수용과 ‘반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했다. 루더 화이팅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과 이사와 슈지(伊澤修二, 1852-1917)의 합작품인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1881)을 시작으로 ‘쇼오카’(唱歌)가 전국구의 학교에 유통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게 되었고, 서양음악은 급속도로 일본 전역에 퍼져갔다. 따라서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접한 일본의 음악은 ‘요가쿠’(洋樂), 즉 일본화된 서양음악이었다.

일본 음악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보면 주로 학교 교육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체류한 후베이(湖北) 지역 유학생 중 한 명이 일본 학생들의 생기발랄함(朝氣蓬勃)과 활기참(欣欣向榮)에 대한 인상을 남긴 말이다.

나막신을 신고 빨간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손을 잡고  
오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길가에서 노래를 부르니 모  
두가 함께 따라 부르네, 학교는 참으로 빼곡히 있네.<sup>18)</sup>

단체로 통일된 교복을 차려입고 다 같이 한 노래를 부르며 등교하는 일본 학생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과 즐비하게 있는 학교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한 유학생은 일본의 소학 창가 과목을 청강한 후 어린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장면과 소리가 매우 충격적이었음을 언급했다.

노랫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가지런하며, 그 기운이 저 먼 곳까지  
삼킬 것 같이 위협적이구나. 나는 심히 감동을 받았고 소름이 끼  
쳐...<sup>19)</sup>

---

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2014), 77.

18) 湖北學生界, 第四期, 詞藪, 二. 黃福慶, 『清末留日學生』(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3), 107에서 재인용.

19) 項文瑞, 『東遊日記』. 馮長春, “明治時代日本音樂文化變遷對清末中國音樂文化的影響,”

페이스(匪石)는 1903년 일본의 중국유학생들이 발간한 간행물인 『절강조』(浙江潮)에 “중국음악개량설”(中國音樂改良說)이란 글을 실었는데, 이 글에서 일본의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본도 유신 이전 사용한 악기인 금적(琴笛), 비파(琵琶), 호금(胡琴) 등을 스스로 개혁했으며, 서양음악이 사범학교 이하 모든 학교에서 학습된다. (...) 서양음악은 항상 국민의 진취를 고취시키면서 국민을 한 마음으로 하게 한다. (...) 군대 진행시 사용되는 군악이 일본에서는 학교에도 사용되어 학교의 원동력이 되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은 모두 군악과 함께 이루어지니, 그 성대함이 극에 달한다.<sup>20)</sup>

그는 서양음악을 흡수해 전통음악을 적절하게 개혁한 일본을 선구적 모델로 여겼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서양의 학교 음악 교육 제도를 모방해 유럽이나 미국, 혹은 기존 일본의 곡조를 편곡하거나 새롭게 작곡해 일본 학교의 노래가 군가로 사용하는 ‘화양절중’(和洋折中)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중국 음악 역시 철저히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0년에서 1919년 사이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 음악을 배우러 유학을 간 중국인이 약 4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 1912년 중화민국 건립 이전에 서양음악을 배우러 일본에 유학한 학생이 30명 정도<sup>21)</sup>라 하니, 1900년대 학당악가를 창작하고 보급한 인물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 출신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일본 음악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한 사람은 샤오유메이(蕭友梅), 쩡즈민, 가오서우토텐(高壽田) 등이 있고, 다른 전공에 재학 중이었거나 속성으로 음악을 배운 사람에는 선신궁, 리수통,

『星海音樂學院學報』, 2013, 62에서 재인용.

20) 匪石, “中國音樂改良說”, 『浙江潮』第六期(臺北: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史料編纂委員會, 1968), 8-9.

21) 陳應時·陳聆群, 『中國音樂簡史』230.

신한(辛漢), 화전(貨振), 예중령(葉中冷)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사상가이거나 운동가인 량치차오, 탕화룽(湯化龍), 추진(秋瑾) 등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음악을 자주 듣고, 그 문화를 관찰하면서 음악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음악 교육에 영감을 얻은 량치차오는 메이지 일본 학교의 음악 교육과 같이 중국에서도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국민 교육에 있어 새로운 음악의 유입과 교육이 필수적 과목이라고 생각했으며, 『신민총보』에 연재하던 “음빙실시화”(飲氷室詩話)를 통해 다 음과 같이 언급했다.

국민의 품성을 개조하려면, 시가와 음악이 정신교육의 관건이다.  
 (...) 만약 교육에 종사한다면 실로 창가 수업은 학교에서 결코 빠  
 뜨려서는 안 되는 수업이다. 온 나라에 새로운 음악(新樂)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실로 사회의 수치이다.<sup>22)</sup>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떠나’<sup>23)</sup> 일본의 신식 음악을 접하고 공부한 여러 유학생들은 귀국 후 중국식 학교 창가인 학당악가 문화를 선도했다. 이들은 일본 유학을 통해 스즈키 요네지로(鈴木米次郎, 1868-1940)와 같은 당시 일본 음악 교육의 대가들에게 직접 음악을 배우면서 서양 음악을 취득했고, 당시 유행하던 일본 창가 문화를 경험했다.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 담론화된 음악 개량설과 서양음악을 통한 음악 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신식 학당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새로운 문화를 중국에 전달했다. 또한 서양식 곡조의 짧은 노래 몇 소절이 학생들 사이에 일체감을 도모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데

22) 張靜蔚, 『中國近代音樂史料匯編』 106. 백광준,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293에서 번역문 인용

23)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는 엔안성이 저술한 책 제목(일조각, 2005)이자, 량치차오를 비롯한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중국인의 일본 유학을 비유는 말로 자주 언급된 표현이다.

일조하는 일본의 창가 문화를 중국에 그대로 들여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중국이 국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을 교육, 계몽하고자 했다.

### 3. 1900년대 국민국가 만들기를 위한 학당악가의 창작과 출판

#### 1) 학당악가의 창작과 출판

일본 유학 중인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중국식 창가의 창작은 일본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유통되었다. 하나는 한두 곡의 노래를 잡지나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통해 소개하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음빙실시화』(飲水室詩話)에 <애국가> 및 각종 군가 등을 소개했으며, 썩즈민은 도쿄의 중국 유학생 단체 중 하나인 강소동향회(江蘇同鄉會)에서 출판한 잡지 『강소』(江蘇)에서 “악리대의”(樂理大意), “창가와 교수법”(唱歌及教授法)이란 글과 함께 <연병>(練兵), <유춘>(遊春) 등 6곡의 노래를 소개했다. 리수통은 일본 유학 중인 1905년 중국 최초의 음악 잡지인 『음악소잡지』(音樂小雜誌)를 발행해 <나의 조국>(我的國), <봄날의 달리기>(春郊賽跑), <수나라 운하의 버들>(隋堤柳) 등 세 곡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유학이 한창이던 1987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잡지를 통해 학당악가 유통되었다. 아래 악보는 량치차오의 <애국가>이다.

[악보 10] 〈애국가〉

天 泱 哉 吾 中 華 最 大 洲 中 最 大 國 廿 二 行 省 爲 一 家 物 產 腴 沃 甲 大 地  
 天 府 雄 國 言 非 誇 君 不 見 英 日 區 區 三 島 尙 崛 起 況 乃 堂 堂  
 吾 中 華 結 我 團 體 振 我 精 神 二 十 世 紀 新 世 界 雄 飛 宇 內  
 時 與 倫 可 愛 哉 吾 國 民 可 愛 哉 吾 國 民

유학중이던 지식인 및 학생들은 1900년대 중반부터 귀국해 중국 여러 학당에 악가 과목 교편을 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실제 교육을 위해 창작한 여러 곡의 학당악가를 모아 악보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학당악가 악보집인 선신공의 『학교창가집』(學校唱歌集, 1904)<sup>24)</sup>을 시작으로 최소 15곡 이상의 학당악가를 수록한 악보집으로 출판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중화서국(中華書局) 등 출판사가 밀집해 있는 상하이로 중심으로 학당악가집이 출판되었으며, 일본 유학 중 도쿄에서 악보집을 발행하기도 했다. 1909년 『신찬창가집』(新撰唱歌集)을 출판한 상무인서관은 학당에서 가르치는 악가 및 창가 과목과 그에 필요한 창가집 출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창가 과목은 성정(性情)을 다스리기에 덕육(德育)과 절대적인 관계

24) 최초의 학당악가 악보집이라 알려진 선신공의 『학교창가집』(學校唱歌集, 1904)은 선신공이 1903년 일본 유학을 갓 마치고 귀국해 상해남양공학부속고등소학당에서 창가 과목을 창설하고 가르치면서 직접 만든 학당악가를 엮은 악보집이다.

에 있으므로 본 출판사는 창가집을 출판하여 악보를 선별하고 노래를 만드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뜻을 둔다.

1901년 상하이 남양공학부속고등소학당(上海南洋公學附屬高等小學堂)에서 중국 학교 중 최초로 정식 악가 과목이 설립된 이래 학제와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악가를 신식 학당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재가 필요했으며, 각종 출판사들은 창가 교육의 의의를 고려해 악보집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중 쟁즈민의 『교육창가집』(1904), 선신궁의 『학교창가집』(1904), 리수통의 『국학창가집』(1905)은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된 악보집으로, 학당악가를 대표하는 3대 악보집으로 손꼽히며, 이후에 출판된 다른 창가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표 1) 1900년대 출판된 악보집

제목	저자	출판년도	출판지	출판사	곡수	악보형태
學校唱歌集	선신궁	1904	상하이	·25)	16	숫자보
教育唱歌集	쟁즈민	1904	·	·	·	·
國學唱歌集	리수통	1905	상하이	중화서국	·	숫자보
音樂學	후베이사범생	1905	도쿄	후베이학무처	40	숫자보
國民唱歌集	쟁즈민, 진송령(金松峯)	1905	·	·	·	·
學校唱歌集 二集	선신궁	1906	상하이	·	16	숫자보
女學唱譜	니췌민	1906	상하이	상해교육관	27	숫자보
唱歌教科書	신한	1906	상하이	보급서국	33	합보
學校唱歌集	우시 <sup>26)</sup> 성남공학당	1906	상하이	문명서국	·	숫자보
唱歌遊戲	왕지권(王季君), 후권푸	1906	상하이	상무인서관	·	숫자보

제목	저자	출판년도	출판지	출판사	곡수	악보형태
怡情唱歌集	왕원권	1906	상하이	육문학사	34	숫자보
單音第二唱歌集	허우홍젠	1907	상하이	문명서국	28	합보
小學唱歌 初集	예중령	1907	상하이	상무인서관	·	숫자보
小學唱歌 二集	예중령	1907	상하이	상무인서관	40	숫자보
小學唱歌 三集	예중령	1907	상하이	상무인서관	21	숫자보
女子新唱歌 二集	후권푸, 예중령	1908	·	·	·	숫자보
女子新唱歌 三集	후권푸, 예중령	1908	·	·	·	숫자보
新撰唱歌集 初編	후권푸	1909	상하이	상무인서관	33	오선보
新撰唱歌集 二編	후권푸	1909	상하이	상무인서관	16	오선보
新撰唱歌集 三編	후권푸	1909	상하이	상무인서관	42	오선보

1900년대 출판된 학당악가 악보집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보집의 가장 첫 부분에 서(序), 범례(凡例)와 같은 일종의 서문과 목차가 있어 악보집의 이해를 돕는다. 각 악보집의 서문에는 악보집의 집필 과정이나 동기, 목적 등이 담겨 있어 연구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둘째, 악보집에 담긴 모든 노래는 ‘일보일가’(一譜一歌)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일보일가는 곡의 가사가 악보와 별도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편집 구성을 일컫는 용어다.<sup>25)</sup> 즉 가사가 포함된 악보 한 쪽과 악보 없는 가사 한 쪽이 노래 한 곡의 기본 구성이다. 이는 일본 창가집에서 유래되었으나, 그 용도는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25) 알 수 없음

26) 우시(無錫)는 중국 장쑤성(江蘇省) 남부에 있는 도시명이다.

27) 일보일가(一譜一歌)는 『소학창가』(1909) 서문에서 차용한 용어로, 서문에서는 “例譜凡四十祇一譜一歌...(총 40곡을 일보일가 형태로 수록하였으며...)”라고 소개한다.

한자의 혼용으로 구성된 일본어의 특징 때문에 문어에서는 한자를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표기하므로 악보(譜) 부분에는 악보와 히라가나(혹은 가타카나) 가사가, 가사(歌) 부분에는 한자 가사가 기재되어 있다. 악보 부분의 가사는 악보와 가사와의 음절을 맞추기 위해 한자를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풀어서 기입한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두 지면의 가사 텍스트는 일치하며, 단 별도로 기재된 가사 부분에서는 악보에는 표기할 수 없는 가사의 운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창가교과서』(1906)의 서문, 악보, 가사 예

序

時無論乎古今國無限乎東西音樂爲感情之教育識者所同認也中古以降雅樂論胥凡家絃戶誦者非高深艱澁之詞即下里巴人之曲或有文而無聲或有聲而不文求其足以發揮國民之精神舒暢兒童之腦筋可誦可講可和者蓋已渺不可觀誠言教育者之遺憾耳帝國大學法科留學生辛漢氏嘗以功課之暇從予學音樂學既有所得矣去年冬出所撰新譜數汁首譜以東西教育

讀書樂

樂歌

今日讀書滋味多

夜來明月入我房

(一) 讀書之樂樂如何 早起紅日照我窗

(二) 讀書之樂樂如何 昨日讀書書笑我

讀書樂 石馬

셋째, 숫자보의 사용이다. 『신찬창가집』(1909)을 제외한 나머지 악보집은 모두 숫자보이며, 『음악학』(1905)과 『창가교과서』(1906)는 합보(숫자보와 오선보 함께 표기)로 제시되어 있다. 숫자보<sup>28)</sup>란 음고와 음

28) 숫자보(numerical notation, 簡譜)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가 계몽주의에 입각하여 특정 계급만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한 음악 교육을 위해 고안해 낸 악보 형태라 알려져 있다. 당시 숫자보가 루소의 창안물이 아닌 수엠티 신부의 것이란 의견에 대해 『참회록』(1778)을 통해 “옥타브를 고려하지 않고 평조의 일곱 음을 표기한 수에따의 방법이 모든 악보, 즉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음표, 쉼표, 옥타브, 소절, 박자와 음의 장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숫자로 표기할 수

가를 각각 1부터 7까지의 숫자와 부호(· \_ = …)로 나타낸 악보로 중국에서는 ‘간보(簡譜)’라고 일컫는다. 숫자보는 도(Do) 레(Re) 미(Mi) …라는 음이름을 알지 못해도 쉽게 읽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며, 이동도법(movable Do)에 의거한 상대음을 표기하기 때문에 조성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서양 음악의 곡조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초기의 학당악가 및 창가집에서는 주로 숫자보를 사용했으며, 그 이후에도 대중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악보집<sup>29)</sup>의 경우 숫자보를 수록하여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했다.

넷째, 숫자보의 경우 조성과 박자를 제목 옆에 따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 때 조성의 표기를 F調, C調, B b調와 같이 모두 알파벳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주로 도레미의 일본식 표기인 ㄱ(하)ㄷ(니)호(호)ㄴ(헤)卜(도)ㅣ(이)ㅁ(로)로 나타낸 반면, 중국의 학당악가 악보집에서는 조성은 모두 영국/미국식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섯째, 독보(讀譜)를 돕는 간단한 음악 이론이 수록되어 있다. 『여학창가』(1905), 『음악학』(1905), 『창가교과서』(1906), 『소학창가 3집』(1907)에는 수록곡 전후로 숫자보나 오선보의 기호와 명칭을 소개하는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록곡들이 숫자보로 되어있는 『여학창가』의 경우, 보표(譜表), 음표(音符), 쉼표(休止符), 마디(加線), 음이름(音名) 등의 소주제에서 숫자보에 등장하는 각종 기호에 대해 설명한다. 『창가교과서』에서는 악보 기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박자의 종류, 지휘법, 각 종 조성, 악상기호 및 빠르기 말 등을 소개한다.

---

있는 간단하고도 편리한 내 발명과 전혀 비교도 안된다... 내 방법의 최대 장점은 조옮김과 음표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즉 같은 멜로디 처음에 있는 첫 글자 하나만을 변경하면 자유로이 모든 음조가 기록되고 이조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J. J. 루소, 『참회록』 (서울: 동서문화사, 2014), 308-309.

29) 『항진가곡집』(抗戰歌曲集, 上海: 生活書店, 1938), 『동자군 창가집』(童子軍唱歌集, 上海: 二二五童子軍書報用品社, 1934) 등이 있다.

(그림 3) 학당악가집 표지들



여섯째, 작곡·작사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학창가』와 『창가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수록곡에 대한 인물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여학창가』와 『창가교과서』의 경우도 수록곡 별로 한 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학당악가의 가사를 쓴 인물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곡의 작곡가나 곡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창작된 창가와 군가, 혹은 일본이 수용한 유럽 민요에 한정되어 있다.

(악보 3) 일본 『유치원창가집』(1887) 〈마음은 굳세게〉와  
중국 『음악학』(1905) 〈개미들의 전〉

1. ココロハタケク キハ ツヨク デアヘルコトニ ウゴカス ヒトツ

馬蟻馬蟻能保種臨戰个与勇 紅馬蟻兒紅一堆 黑馬蟻兒黑一洞  
紅的紅來黑的黑 前進志多猛

(악보 4) 일본 『소학창가집 초판』(1881) 〈나비야〉와  
중국 『여학창가』(1906) 〈일찍 일어나, 〈제비〉)

てふ き てふ てふ き てふ ナ ノ ハ ニ ト マ レ  
二 お き よ お き よ ね ぐ ら の す ず め

早 些 起 早 些 起 早 些 起 來 上 學 去

燕 子 飛 燕 子 飛 爲 了 燕 子 去 唧 泥

(악보 5) 스코틀랜드 민가 〈밀밭에서〉, 일본 창가 〈고향의 하늘〉,  
중국 학당악가 〈함께하는 즐거움〉

1. If a bod -y meet a bod -y com -i' thre' the rye,

1. ゆ ふ そ ら は れ で あ き か ぜ ふ き

合 群 之 樂 樂 如 何 聽 我 樂 群 歌

학당악가의 음악적 특징은 일본 창가의 특징과 크게 다를 것 없이, 2박 계열에 비교적 간단한 조표를 가진 조성, 그리고 박절적이고 음절적(syllabic)인 선율 진행을 보인다. 따라서 음악적으로는 “습작의 단계에 불과했다”.<sup>30)</sup> “유치(幼稚)하고, 허술(簡陋)하다는 약점이 있다”<sup>31)</sup>는 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음악적으로는 “중고품”에 불과한 학당악가는 음악으로서의 역할보다 곡조 안에 담고 있는 가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바꿔 말하면, 가사의 내용을 보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곡조를 갖다 붙인 노래인 것이다. 청말 지식인들이 일본식 서양 음악(리듬이 박절단위로 명확히 구분되고 평균율에 따른 단순한 음계와 선율)을 바로 들여올 수 있었던 데에도 집체(集體) 단위의 학생들을 한 덩어리로 만든 일본 창가의 효과를 유학 기간 동안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활동과 몸짓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창가 특유의 생기발랄함이 ‘근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국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을 계몽하는 데 유용하다고 여겼다.

## 2) 국민국가 만들기를 위한 학당악가 - 량치차오의 “신민설”에 의거한 학당악가 주제 분석

“장군의 투지가 투력과 같지 않으니 아 문호가 열리는구나, 장성을 잃어 슬프거늘 여전히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있구나.”(『소학창가 2집』 수록곡 <주변> 중)

“중국 남아 중국 남아 모름지기 양손으로 하늘을 받쳐야 하네.”(『창가교과서』 수록곡 <중국남아>중)

“우린 동일하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가 남녀를 일컬어 불평등이라 하나.

어찌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가벼운가. 학문은 진실로 남자와 다르지 않은데.”(『여학창가』 수록곡 <평등>중)

30) 장전,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244.

31) 王毓和, 『中國近現代音樂史』, 51.

“누가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나, 여지옥을 보아라. 여지옥의 고통은 어찌나 잔인한지, 최고의 고통은 혼인이네.”(『여학창가』 수록곡 <여지옥> 중)

소개한 가사는 대표적인 학당악가집에 수록된 노래들이다. 문호가 개방된 후 위기에 처한 나라의 상황을 노래하며, 남학생에게는 용기와 포부를 심어주고, 여학생에게는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에서 깨어나 혼인보다는 학문에 증진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게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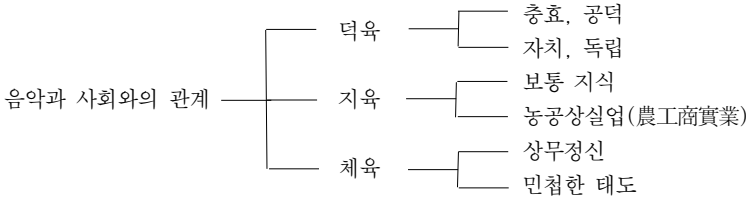
학당악가의 창작은 국민 국가의 여러 조건 중 하나인 ‘국민’을 만들기 위한 지식인들의 실천 행위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연이은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입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청말, Kang유웨이, 량치차오 등 대표적인 유신파 지식인들은 나라를 구하기(救國) 위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몽을 강조했다. 구국을 위해서는 낡은 사회를 개량하여 새로운 사회의 이상향인 국민 국가로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적인 악습을 철폐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공덕(公德)<sup>32)</sup>인 애국심을 함양하게 하여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열망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데 학당악가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구국의 차원에서 개혁을 주장한 지식인들은 직접 작사에 가담해 기존 곡조에 배합하는 과정을 통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작된 학당악가는 장차 미래의 국민이 될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있었다.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창가, 군가, 유럽의 민요 등 비록 전통음악과 다른 낯선 곡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절적이고 박절적이며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가사를 전달하기에도 적합했다.<sup>33)</sup>

32) 량치차오는 “신민설”에서 전통적인 유교의 ‘공덕’(公德)을 애국심과 동일시했다.

학당악가 선구자 중 한 명인 썩즈민은 그가 저술한 『악전교과서』(1904)의 서문에서 음악이 일반 대중들의 성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를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덕육’(德育), ‘지육’(智育), ‘체육’(體育) 세 방면에서 교육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사회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20세기 신중국의 노래를 만들지 않겠나”라며 새로운 음악으로 중국 사회를 개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표 2〕 『악전교과서』(1904) 서문



여기서 썩즈민이 언급한 지, 덕, 체를 위한 교육은 근대 국가에 적합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계몽 철학의 집결판인 량치차오의 “신민설”(1902)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개념이다. “신민설”은 량치차오가 무술변법운동이 103일 만에 실패로 끝난 직후 일본에 체류하면서 1902년 2월부터 1906년 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집필한 글로, 구국에 대한 절박한 량치차오의 상황과 사회진화론, 국가주의, 도덕주의라는 세 가지 이념이 드러난다. 그는 ‘신민’(新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국

33) 가사는 주로 7·7조, 7·5조, 3·3·7조에 4행 길이가 일반적이며, 가사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가해지기도 한다.

7·7조 가사의 예 (“평등(平等)”) 吾人同是天地生 誰謂男女不平等 / 何重分女何輕 學問實不如男人 / 朝點脂暮拍粉 甘居下賤不自尊)

7·5조 가사의 예 (“그네(鞞韃)”) 雨餘芳草夕陽天 功課早完畢 / 綠楊陰裡打鞞韃 天足都輕便 / 羅裙着地花輕拂 紅板如梭織 / 勿謂遊戲無規則 預備航海術)

민 국가 만들기의 핵심이라 소개한다. 국민을 문명, 진화, 국가의 근원이라 여긴 량치차오는 “신민설”에서 국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회의 초기 단계에는 부민(鄙民)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는데, 부민에서 국민으로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문명과 야만이 나뉘었다. 부민과 국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족속(群族)이 모여 살며 자신들의 풍속을 이루는 자들을 부민이라고 하며, 국가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를 펼 수 있는 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천하에 국민 없이 국가를 이룩한 적은 없다.<sup>34)</sup>

국민의 건설은 문명과 야만의 척도였다.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한 국가의 진보와 정체를 국민의 유무라고 보았던 량치차오의 주장은 당시 일본 유학을 통해 메이지 일본을 경험한 지식인 및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진리이자 자신들이 건설해야 할 사명으로써 공유된 담론이었다. 당장 위기를 몰고 온 서구 열강에 대항하기 위한 태세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민(新民)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기존의 부민과 다른 ‘새로운’ 국민이 되기 위한 요소를 민지(民智), 민덕(民德), 민력(民力)로 손꼽았다.

지금 정치, 학술, 기예 등을 노나는 사람들은 모두 남의 장점을 취해서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민덕, 민지, 민력이 바로 정치, 학술, 기예의 큰 근원이라는 것은 모른다. (...)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것을 보충해 우리 백성을 새롭게 할 방법에 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sup>35)</sup>

34) 양계초/이혜경 주해, 『신민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07.

35) 양계초, 위의 책, 65.

이 때 민덕은 수신하여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을, 민지는 과학, 신문물과 같이 서양에서 건너온 근대적 지식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민력은 체력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병력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일컫는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위대한 국민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에 대한 기대, 국민에 대한 담론이 개혁을 꿈꾼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교육을 통해 실천하기 시작한 시점인 1900년대 초는 일본 유학을 통해 창가가 유입되면서 중국에 학당악가가 자리한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일본 유학을 했던 학당악가 선구자들과 량치차오는 일본에서 음악과 사회개혁을 매개로 동행한 흔적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학문을 갈구하여 신지식을 습득하자(民智)

학당악가의 가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신지식을 노래가사로 쉽게 전달하며 동시에 학습을 장려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꾸준히 학문에 매진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창가교과서』에 수록된 <독서는 즐거워> 가사 전문이다.

독서는 즐겁지 않은가?

讀書樂之樂如何

이른 아침 붉은 햇빛이 내 창을 비추고

早起紅日照我窗

밤이 오면 밝은 달빛이 내 방을 비추네

夜來明月入我房

독서는 즐겁지 않은가?

讀書之樂樂如何

어제의 독서는 나를 웃게 하고

昨日讀書書笑我

오늘의 독서로 기분이 더욱 좋아지네

今日讀書滋味多

과거에는 수신(修身)이나 학업은 문인과 같은 특정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대중들에게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의 자기혁신’을 의미하는 신민(新民)이 대두되면서 독서 및 학업이 국민의 중요한 조건

으로 부각되었고, 학당악가에서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장려하는 주제가 많이 창작되었다.

권학과 더불어, 학당악가는 기존 중국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식견과 지식 등을 가사에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예를 들어, 지리학적 차원에서 중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존재를 인식시켜주었다. <지구>(地球, 1904), <아시아>(亞細亞, 1905), <각국도성>(各國都城, 1906) 등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이 아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창가집』(1904)에 수록된 <지구>의 전 가사를 보자.

서남북 넓은 바다 저 멀리 배가 오고 가네	南北東西大海邊 遠望來去船
가는 배를 보니 배가 먼저 수평선 넘어 내려가고	去船何所見 船身先下水平線
오는 배를 보니 수면 위로 기가 펴터는 것이 보이네	來船何所見 水面先露旗??
가는 곳 마다 굽고 굽어 오렌지 면과 같이 둥그네	可知大地到處彎彎 圓如橙子面
산은 높고 물은 낮아 적도는 볼록하고 양 끝은 평평해	山高水底赤道膨脹兩極扁
오렌지 위를 배회하는 개미처럼 우리 지구를 돌아다니자	吾人環地行 宛似橙面蟻盤旋

<지구>는 둥근 지구의 원리와 생김새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묘사한 노래다. 바다 위로 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며 지구가 둥글다는 원리를 생각하게 하고, 지구를 오렌지, 사람을 개미에 비유해 학생들이 알기 쉽게 지구의 형체를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우리 지구를 돌아다니자”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음은 <아시아>라는 제목의 학당악가다.

5대주 기름진 땅 하지만 나는 아시아	五大洲 稱膏腴 惟我亞細亞
마라산, 지중해, 서쪽의 유럽	馬拉山 地中海 西界歐羅巴
태평양 북미를 지나 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어	太平洋 通北美 可以一航駕
서남단 홍해를 지나면 곧 아프리카네	西南端 隔紅海 卽阿非利加

오대주를 “기름진 땅”이라고 묘사하면서 아시아 이외의 유럽, 북미, 아프리카를 소개한다. 각 대륙에 대한 지리적 설명을 통해 지구와 세계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킨다. 지구,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은 소재는 중국이 천하(天下)이자 문명의 중심이라 여겼던 전통적인 세계관과 철저히 대비되며, 중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의 국가라는 근대적 세계관을 상징하기도 한다.

학당악가가 전하는 신지식에는 새로운 세계관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물리 등도 있다. 선신공은 『학교창가집』에 <영문자모>, <수학유희> 등을 실었으며, 무석성남공학당(無錫城南公學堂)에서 발간한 『학교창가집』(1906)에서는 <역사>, <지리>, <영문>, <수학>(數術) 등의 제목으로 신지식을 소개하는 노래를 다수 수록했다. 예증령은 『소학창가 3집』 서문에서 “동서양 소학가집에 모두 있는 숫자 놀이 노래를 이 악보집에도 실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언급하며 <숫자놀이>, <8대행성> 등의 노래를 수록하기도 했다.

## ②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며 상무정신을 함양하자(民力)

중국 최초의 학당악가라 불리는 선신공의 <체조·병조>(體操·兵操, 1902)는 신체 단련을 위한 아이들의 체조를 군대식 훈련과 동일시하며 남자 아이들의 신체 운동을 장려하는 주제의 노래다.<sup>36)</sup>

19세기 말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육상, 축구, 배구, 농구 등 서구의 스포츠가 중국에 전파되었고, 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회를 벌인 서양인들의 활동이 이후 학당에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에서 처음으로 체육이 교과목으로 편성되면서 체육을 중시하는 서구인들의 교육관이 중국에 안착할 수 있었다.

놀이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단련이 중국 지식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체조를 비롯해 공놀이, 운동회, 운동장 등 야외 활

36) 본 논문의 3쪽 [악보 2] 참조 바람.

동과 관련된 주제의 학당악가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다음은 『음악학』에 수록된 <야외체조>의 가사다.

나란히 서서 하나의 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성 밖을 나서네	際伍齊齊排出城 操衣一色新
종이 울리면 땅을 박차고 행진해 모두들 정신을 갖추고 있네	後鐘鎗兒尙着行 個個有精神
총검을 은과 같이 밝게 닦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刺刀擦得白如銀 閃閃輝日星
들판은 풀색으로 푸르니 마음은 말발굽처럼 가볍고	平原草色青青 墊着馬蹄輕
날이 갠 후 빛은 맑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네	山光霽後清清 聽空淨無雲
앞에 있는 한 쌍의 룡기 따라 우리 모두 나아가자	一隻龍旗前面迎 大家隨後跟

건강한 신체 만들기는 곧 상무정신과 이어졌다. 과거 중국은 전통적으로 무력(武力)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으나, 연이은 전쟁의 패배로 무력, 즉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곧 국력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이 잇따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군국주의가 중국 내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량치차오는 “신민설”에서 당시 중국에 상무정신이 결여되어 있음과 무기 제조나 군대 정비 등 외향적인 성장에만 치우쳐있던 1860년대 양무운동의 사조를 모두 비판하며 현재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상무정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량치차오가 주장한 상무정신의 중요성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주요한 교육 방침으로 다가왔다. 결국 1905년 교육 관할 부처인 학부에서는 ‘상무’를 교육 방침의 하나로 확립하기에 이르렀고, 상무는 중국 교육이념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무를 주제로 하는 가사의 학당악가들이 다수 창작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게 되었다.

『소학창가 2집』에서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일곱 가지의 주제 중 상무(尙武)를 가장 첫 번째 주제로 꼽아 <존협>(尊俠), <군국민>(軍國民), <주변>(籌邊), <작은병사>(微兵), <장수를 생각하며>(思將帥) 등 다섯 곡을 실었다. 이 다섯 곡은 체조나 야외활동 등 신체 단련을 위한 활동

의 장려를 넘어 직접적으로 나라의 위기와 구국 정신을 전달한다. “하늘을 향해 검을 휘둘러 혈이 가득 차니 국가의 원수를 어찌 쉽게 잊을까”(존협), “누가 오랑캐를 주변에 들여와 날마다 국경을 들이닥치고 적계를 열라 허락했나”(주변), “나라를 부강하게 함을 교훈 삼아 다함께 적개심을 불태우자”(작은 병사)등 현재 청나라의 대외적 위기 상황임을 암시하는 가사의 내용이 소학생들을 위한 학당악가로 불리기도 했다.

건강한 신체 단련과 상무정신 함양은 남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국민의 어머니’인 여성의 건강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말 여성해방운동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명인 진텐허(金天翮, 1874-1947)는 여성들의 혁명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쓴 『여계종』(女界鐘)에서 스코틀랜드의 체육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지금 중국의 여성은 서둘러 운동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운동을 한 뒤에 신체가 강해지고, 신체가 강해진 후에 정신이 유쾌해지며, 일을 할 때도 여유가 있다”<sup>37)</sup>고 주장해 여성의 신체 활동을 장려했다.

여성의 신체적 단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랜 구습인 전족(纏足)에 서부터 여학생들을 해방시켜야 했다. 선신궁은 1905년 잡지 『여자세계』(女子世界)에 <전족가>라는 제목의 노래를 실어 대중들에게 전족을 족쇄에 비유하며 그것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전족은 아파 가장 괴로워  
어렸을 때부터 늙어서까지 아프네  
걸을 때 한 번도 몸이 사뿐한 적이 없었네  
요괴를 만들지마, 나쁜 짓 하지마,  
은밀하게 일생에 족쇄를 채우네.

纏脚苦 最苦惱  
從小苦起苦到老  
未曾開步身先嬌  
不作孽 不作惡  
暗暗裡一世上脚鍊

37) 金天翮, 『女界鐘』(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32. 백광준, “중국 근대교육의 발전,” 『중국 근대의 풍경』, 319 재인용.

『여학창가』의 첫 번째 수록곡 역시 전족의 고통을 노래한 <전족고>다. 다음은 <전족고>의 가사다.

전족은 아파, 전족은 아파, 전족은 정말 아파	纏足苦, 纏足苦, 纏足眞眞苦
어려서부터 안을 칭칭 감아 죄수와 같고,	少小就要裏重重 束縛如囚徒
여자마음 어찌 강해질까 목 놓아 울어도 끝내 알아주지 않네	阿娘心何硬由他 啼哭終不顧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네	縱道是好看已經 一世受痛楚
오직 자매들만 생각하니 부디 전족의 고통을 감수하지 말길	但願姊姊妹妹 弗受纏足苦

요괴, 족쇄, 죄수, 아픔, 고통 등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족을 함으로써 겪는 신체적 고통과 인생에 있어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써, 전족의 폐해와 방족(放足)이나 천족(天足)의 당위성을 절감한 당대 지식인들이 학당악가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자들이 전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두 발로 남학생과 같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체력 증진 향상을 주제로 한 학당악가도 창작될 수 있었다. 다음은 『여학창가』에 수록된 <체조>의 가사다.

연약이라는 명사는 결코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	嬌嬌這個好名詞 決計吾們不要
우리에게만 좋은 학문과 신체만 필요할 뿐,	吾既要吾學問好 吾又要吾身體好
체조하자, 우리는 20세기 영웅호걸.	操操二十世紀中吾輩也是英豪

<체조>는 여성을 상징하는 글자인 ‘嬌’(연약하고 나긋나긋함)의 미학을 철저히 부정하고, 20세기에 걸맞은 근대적 여성상으로서 학문과 건장한 신체를 제시한다. 『여학창가』에는 <체조> 외에도 야외에서 활기찬 놀이를 묘사하는 <공놀이>(拍球), 신체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여 결실을 맺길 권장하는 <부지런히>(勤), 활기차고 흥겨운 운동회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운동회> 등이 수록되어 여학생들의 신체적 체력 증진과 활

동적인 정서를 장려한다.

③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아들, 딸(民德)

국가를 위해 개인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량치차오를 비롯해 당시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중요한 국민의 역량이었다. “국가사상이 없는 자는 미개한 인종이며, 애국정신이 없는 자는 짐승과 다름없다”<sup>38)</sup>는 말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애국심 함양은 국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식인들은 서양음악을 국가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900년대 중국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계몽과 풍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성속화보』(醒俗畫報, 天津, 1907) 중 “유관풍화”(有關風化)라는 제목의 화보는 사람들이 중국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그림과 함께 다음의 글을 남겼다.

떠도는 이들이 연주하며 창을 하면, 부녀자들이 모여서 듣는데, 그 원인은 모두 교육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음악을 중시하지만, 국위를 선양하거나 자강을 권장하는 등 모두 사람들의 기백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 중국만 이런 비속하고 쓸모없는 가사를 서로 흉내 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국민 수준의 차이가 어찌 이렇게까지 만든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난다.<sup>39)</sup>

량치차오의 공덕이라는 개념과 성속화보에서 설명하는 서양음악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개혁을 위한 지식인들은 근대적 국가 만들기 에 사활을 걸었으며, 모든 요소들을 ‘국가’와 관련지어 사유했다. 특

38) “無國家思想者，人類之野蠻也；無愛國精神者，人群之禽獸也”，天縱子，“法蘭西愛國女子若安傳”，『政藝通報』癸卯 第6號，1903년 4월 27일자.

39) 백광준, 『중국 근대의 풍경』, 296.

히 량치차오는 애국에 관한 가사를 작사해 여러 편의 ‘애국가’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 중 1904년에 작사한 애국가가 대표적이다. “깊고 깊은 우리 중화! 가장 큰 주의 가장 큰 대국, 22개 성은 한 가족 (...) 나를 단체와 결속하고, 나의 정신을 떨치니, 20세기 신세계 온 세계에 씩씩하고 용기 있게 함께 하네!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여!”라는 가사의 이 애국가는 당시 학교 내 가장 유행하던 애국가 중 한 곡이었다.

애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제목으로 학생들의 애국심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내용의 노래가 다수 창작되었다. 다음은 『창가교과서』에 수록된 <소년>이란 노래의 가사다.

소년들이여 들어라, 나의 노래를 들어라.

내가 부르는 소년가를 들어라.

청춘은 좋으나 때를 놓치기 쉬우니  
봄날의 광명을 한가로이 보내지 마라.  
사람들은 우리 제국이 이미 늙어,  
나라를 어찌해야하나 외치고 있으니,  
어찌 때를 놓칠 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少年聽 聽我唱 聽我唱個少年歌  
青春好 易蹉跎 莫使春光等閒過  
人人說我帝國老 如此江山喚奈何  
喚奈何莫蹉跎 吾輩青年責任多

소년들의 파릇파릇한 청춘을 높이 사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내용인줄 알았으나, 청춘이기 때문에 위태해진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기-승-전-애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꽤 난감하고 막중한 임무가 서양 곡조의 노래로 전달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될 수 있었다. 다음은 『신찬창가집』에 수록된 <나를 사랑하자>(愛吾兒)의 가사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할 수 있어

좋은 국민으로 부끄럽지 않아.

오직 조국을 위해 내 목숨 바치니

은혜를 받아본 이는 은혜를 갚을 줄 알지

개나 말이 주인에게 작은 정성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늘이 맺은 가족에 책임을 갖고 자애를 베푸세

吾愛吾兒能愛國 無慙好國民

兒所託命惟祖國 受恩識報恩

也算吾兒一點點的犬馬戀主微誠

難任我父子天親 慈愛萬分

이처럼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애국주의는 학당악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이상 량치차오가 “신민설”에서 주창한 신식 국민의 상을 골자로 1900년대 출판된 학당악가집의 수록곡 중 몇 곡을 발췌해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학당악가의 곡조, 즉 음악은 청나라 말기에 사회 계몽 운동을 주도한 지식인들에게 근대적 국가와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국민의 상을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안에 새로운 세계관과 지식, 상무정신, 남녀평등 사상, 여성해방 및 국가에 대한 개인의 책임론 등 전통적인 중국의 관습과 문화와 대조되는 근대적 개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나가는 글

중국의 학당악가는 선구자격인 일본의 쇼오카, 동일한 시기 중국과 비슷한 반식민 상황에 처해있던 한국의 창가와 비교될 수 있다. 창가는 한(창가)·중(학당악가)·일(쇼오카) 동아시아 3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근대 음악 문화로,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제국주의 역사

의 교착관계에서 발생한 서양음악의 수용에 따른 문화적 결과물이다. 프라센지트 두아라가 “서구 사회를 제외한 어떤 지역보다도 동아시아 사회는 ‘계몽주의 역사’ 양식을 성공적으로 채용한 지역”<sup>40)</sup>이라 언급했듯, 동아시아의 창가는 서구 근대와 민족주의(nationalism)이라는 공시적인 역사 아래에서 국민의 교육과 계몽을 실현하기 위해 수용한 서양음악이라는 결과물으로써 공통점을 갖는다. 이처럼 중국의 학당악가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의 창가 문화는 ‘유교문화권’과 같은 문화주의적인 시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과 ‘계몽’의 대상과 방법, 내용 등은 분명 상이하다. 일본에서 창가는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던 메이지 정부의 국가 기획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고유한 특징”<sup>41)</sup>을 갖는 반면, 중국의 학당악가는 “일본을 모델로 국민 국가의 형성을 통해 근대 따라잡기를 해야 하는 식민지적 상황”<sup>42)</sup>에 처했던 시기에 국가가 아닌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문화로, 중국 지식인들이 짧은 시기에 자체적으로 담론화한 내셔널리즘 하에서 재구성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일본 창가를 수용해야만 했던 한국 창가 문화와도 구별된다.

중화민국이 건립된 직후인 1912년 제정된 임인학제(壬寅學制)에 따라 학당은 학교로, 1922년 악가는 음악으로 개칭되어 학당악가라는 명칭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18년 학당악가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리수통의 출가와 1920년 독일에서 유학했던 샤오유메이(蕭

40) 프라센지트 두아라,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서울: 삼인, 2004), 43.

41) 장운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쿠메이칸의 매개적 역할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4), 1.

42) 사카모토 히로코,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서울: 지식의 풍경, 2006), 17.

友梅, 1884-1940)<sup>43)</sup>의 귀국으로 중국 서양음악계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19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외래 음악을 번안해 주로 음악 교육가로서 활동했던 기존의 음악가에서 서양음악 기법을 사용해 직접 작곡을 하는 작곡가로서의 음악가로 양상이 바뀌면서, 엄밀히 말해 학당악가의 역사는 1920년대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홍콩 출신 음악학자 류징즈(劉靖之, Liu Ching-chih)가 “신음악(중국 근현대시기 성행하는 서양음악)의 중국화는 불교의 중국화와 같다”<sup>44)</sup>라고 해석하듯, 학당악가는 서양음악 문화가 중국 내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발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당악가는 전통적인 제국 형태의 청나라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의 개혁을 시도한 지식인들이 펼친 ‘구국’, ‘계몽’운동 하에 생산된 시대적 음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순히 신식 교육 제도인 학당에서 불렀던 서양식 노래라는 장르로서의 차원을 넘어 당시 청말 지식인들의 사고와 이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반제국, 반봉건을 주창했던 청말 지식인층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그 실천적 행위로서 교육을 손꼽은 것도 근대화된 국가의 국민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며, 학당악가는 음악을 수단으로 새로운 국민을 형성해 근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중국 내셔널리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43) 샤오유메이는 1920년대 중국의 신음악 문화를 선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예술가곡 풍의 창작을 주도하였으며, 음악교육을 병행했다. 중국의 최초 전문 음악 학교인 국립음악전과학교(國立音樂專科學校, 현 상해음악학원)의 창립자이자 초대 교장이다.

44) Liu Ching-chih, *A Critical History of New Music in China*, 16.

## 참고문헌

-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 과정』. 한국학술정보, 2007.
-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 민경찬 외.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음악세계, 2008.
- 박진수. “근대 일본의 번역창가와 문화내셔널리즘 - 『올드 랭 사인』의 수용과 『반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3 (2014), 73-97.
- 양계초 / 이해경 주해. 『신민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엄복 /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역. 『천연론』. 소명출판, 2008.
- 옌안성 / 한영혜 역. 『신산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 일조각, 2005.
- 요시자와 세이치로 외 / 정지호 외 역. 『중국 근현대사』 1~4권. 삼천리, 2013.
- \_\_\_\_\_ / 정지호 역. 『애국주의 형성: 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중국』. 논형, 2006.
- 이해경. 『양계초 “신민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 조병한. “梁啓超의 국민국가론과 民權·民族관념(1896-1902).” 『서강인문논총』 22 (2007), 307-373.
- 채현경. “Songs of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 Why do we need to study primary sources?” 『이화음악논집』 16/1 (2012), 101-128.
- 최유준. “한국음악과 아시아적 관점; 탈민족주의 음악론과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음악학』 20 (2011), 7-36.
- 프라센지트 두아라 / 문명기, 손승희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 한국사연구회.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 辛 漢. 『唱歌教科書』. 上海: 普及書局, 1906.
- 梁啓超. 『戊戌政變記』. 昆明: 中華書局, 1941.

- 伍雍誼. 『中國近見大學校音樂教育(1840-1949)』.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9.
- 王毓和. 『中國近現代音樂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12.
- 葉中冷. 『小學唱歌(學部審定) 二~三集』. 上海: 商務印書館, 1910.
- 倪覺民. 『女學唱詞』. 上海: 上海教育館, 1905.
- 張靜蔚. 『中國近代音樂史料匯編』.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1998.
- 錢仁康. 『學堂樂歌考源』. 上海: 上海音樂出版社, 2001.
- 中國音樂家協會. 『中國近現代音樂史參考資料, 第一~三編』. 北京: 中國音樂研究所, 1959.
- 曾志忞. 『樂典大意, 第一編』. 上海: 開明書店, 1905.
- 胡君復. 『新撰 唱歌集 初~三編』. 上海: 商務印書館, 1909.
- 黃福慶. 『清末留日學生』. 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3.
- Liu Ching-Chih. *A Critical History of New Music in China*. translated by Caroline Mason,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2010.
- Melvin, Sheila. Cai, Jindong. *Rhapsody in Red: How Western Classical Music Became Chinese*. New York: Algora Pub. 2004.

Abstract

**A study of school songs and nation building  
in modern china**

Seo, Seung-i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hinese school songs and nation building in the modern era. School songs are typical in the music culture of East Asia, having accepted Western music and its cultures into the region.

In late Qing(清) Dynasty, Chinese school songs, which are called xuetyangyuege (學堂樂歌) in Chinese, were sung in the music classes(樂歌) of newly modernized schools(學堂). After the failure of the Hundred Days'Reform in 1898, many intelligentsias fled to Tokyo, Japan, studied Japanese school songs and started to write similar songs in a Chinese version. By virtue of experiencing school songs in Japan, they could make their own and teach them at schools in China as well as publish the music scores by the middle of the 1900s.

In this paper, I examine Chinese school songs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process of accepting Japanese school songs after the China-Japan War in 1894. I regarded this as a reform movement by the intelligentsias against the old structure to save the Qing dynasty. Second, analyzing five different music scores published from 1905 to 1909, I examine how Japanese school songs became utilized in China. Lastly, as Chinese school songs are interconnected with a save-the-nation movement by the intelligentsia who tried to build a nation-state to overcome a semi-colonial situation, a text analysis of the songs based on "On the New Citizen"(新民說) by Liang Qi-chao(梁啟超), a powerful reformist in modern era, is conducted. He insisted that knowledge(知), morality(德), and a healthy body(體) is

positively necessary to build a nation. I classified songs according to these three keywords to study particular features of Chinese school song.

Notwithstanding that the study of the influence of Western music in East Asia has begun to emerge,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Chinese music compared to Korea and Japan in the field of Korean musicology. Therefore, this study fills an important gap in academic studies and brings China into a field of studying school songs in East Asia.

Keywords: China, school song, nation building, intelligentsia, East Asia, music and politics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0월 30일	2015년 11월 4일-23일	2015년 12월 5일